

'저성장 늪' 빠지나 ... 3분기 GDP 0.6% 성장

(한국경제)

실질 국민총소득 전기대비 0.4% 감소... 총저축률 34.8% 전기대비 0.7%포인트 하락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게 나타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그쳤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속보치(0.7%)보다도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전분기(0.8%)보다는 0.2%포인트, 전년 동기 보다는 2.6% 성장하는데 그쳤다.

3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이 앞서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2.7%)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4분기 0.1~0.4%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세부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이 그리 좋지 않다.

먼저 우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3분기 실질 GNI 성장률은 전기대비 0.4% 감소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GDP가 증가했음에도 GNI가 줄었다는 것은 경제의 외형은 커져도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바닥 수준'에 머

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소득이 줄면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성장을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갑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총 저축률도 2분기 연속 줄었다. 3분기 총저축률은 34.8%로 전기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0.1% 줄었지만, 최종소비지출이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은 줄었는데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으니 저축할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출과 내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중단과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0.9%)을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건설투자와 정부의 추경으로 간신히 떠 났지만, 13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역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민간 소비는 물론, 국내 주력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내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이 2.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2.0%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들 보다 더 낮은 2.5%로 보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설치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산업연구원도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낮은 2.2%로 각각 전망했다.

한은도 조만간 재경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출과 설

비투자가 세계교역량 증대,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특히 통상정책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교역량의 하방압력이 발생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치를 다시 한번 세밀히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직방, '구글플레이 베스트앱' 40선 선정

직방이 올해를 빛낸 대한민국 앱에 선정됐다.

직방은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한국 구글플레이를 빛낸 베스트 콘텐츠' 중 올해의 베스트앱 40선에 뽑혔다고 최근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 플랫폼 중 부동산 정보서비스나 숙박예약 플랫폼, 배송서비스 등이 주목받았다"며 "콘텐츠 품질과 사용자 경험, 평점 등을 고려해 8개 주제로 나눠 총 40개 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지난 2012년 1월 출시한 최초의 부동산정보 앱이다. 다운로드 건수는 1600만건으로 부동산 앱 중 가장 많다.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 전월세 매물 정보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

LG전자 조직 개편 'VC사업본부' 강화

글로벌 기업들과 작업 등 새로운 미래 초읽기

LG전자가 연말 인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MC 사업부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VC사업부 혁신에 공을 들인 흔적이 눈에 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정기 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VC사업부 키우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전자는 2016년 상반기 MC 사업부가 G5 부진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한 만큼 신성장동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1일 발표한 인사를 통해 VC사업부를 대상으로 ▲책임 부서를 세분화하고 ▲글로벌 거점을 구축한다는 차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B2B에서는 VC사업본부에서 IV사업부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사업을 통합해 카인포테인먼트를 총괄하는 '스마트사업부'를 신설했다. 또 e-PT(electric Powertrain) 및 VE(Vehicle Engineering) 사업 등 친환경 전기차 부품 분야를 '그린사업부'로 통합하는 등 고객 밀착형 조직으로 재편했다. /뉴시스

VC사업 강화를 위해 본부 산하에 고객 거점 지역별 개발, 생산, 품질, 영업 등을 총괄하는 북미사업센터, 유럽사업센터, 중국사업센터를 운영한다. B2B부문에 B2B마케팅FD를 신설, 전사적 B2B마케팅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LG전자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거점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부품 수출 등에 공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차근차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한 대비라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최근 청라지구 인천 캠퍼스에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전기차 동차 '쉐보레 볼트(Bolt)'에 공급할 11종의 부품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자동차부품(VC)사업본부는 최근 도요타와도 차량용 텔레매틱스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폭스바겐 그룹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 플랫폼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뉴시스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 운영 방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재가동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기와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재가동되면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애로가 경감되는 한편 중위험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미국 대선 이후 채권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는 '트럼프 탠트럼(tantrum·발작)'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채권시장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심리 위축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90개 금융회사와 이 펀드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운영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받

는 방식(캐피탈콜)으로 이뤄진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11월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당시 이 펀드는 회사채를 포함한 프라이어리티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채권 인수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용됐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보증을 더해 신용도를 확보한 채권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등 기업의 일시적 경영으로 확대에 대비해 P-CBO 신규 공급을 7000

"시기 미정... 캐피탈콜 방식" 전문가 "특혜 없이 쓰여야"

역일 확대하고 중기대출에 대한 보증을 늘릴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시각의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미리 공표할 수 없다"며 "금리상황이나 시장상황을 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특혜가 나와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을 돕기 위해 공적인 자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것 인가에 대한 판단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